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4. 4. 24.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라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 2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 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 3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 4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 날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후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1장 14절

다 같이

-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천하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시간을 재며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구분도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든, 36시간으로 나누든 아무 상관없이 시간은 혼자 끝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 재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오직 우리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서 가정과 개인의 삶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시간을 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시간을 재는 원리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지구가 일정한 궤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순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순환을 통하여 하루, 사계절, 한 해를 잴 수 있는 시간의 단위를 생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 시간의 단위들 즉 해와 달과 별이 돌고 도는 그 리듬에 인간의 영혼과 육신의 리듬도 맞추어 주셨습니다.

민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연이 탄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와 달은 저 혼자 도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 땅과 이 땅 위에 사는 우리 인간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을 재는 일에 게으르거나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 시간을 아껴서 최대치를 높여서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다른 시간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시간을 할애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간의 흐름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시간을 잴 수 있도록 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밤낮이 바뀌고 한 해가 지나며 계절이 교차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해를 기준으로 생일을 기념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시간의 순환들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먼저는 내가 자각을 하든 못하든 '시간은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저 한평생을 밋밋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매듭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김없이 돌고 도는 장엄한 자연의 순환 속에서 그 자연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동시에 바라볼 줄 아는 신앙적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도 시작과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며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해가 새로 시작될 때, 개인의 각종 기념일을 맞았을 때, 심지어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새로 바라볼 때마다 시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합시다. 자기를 돌아보고 역사의 종말을 내다보는 기회로 삼아 매 순간을 각성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다같이

- 1 하루 중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 2 2024년이 벌써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새해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짐했었던 내용들을 나누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보세요

중보기도

다같이

- 1 시간의 흐름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도록
- 2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 3 주위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 4 각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5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도록
- 6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도록

마무리 기도

다같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앞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